

## 특별寄稿 - 해외에서 본 한국 언론

# 報道-論評 구분 기본부터 지켜라

한국 일간지의 워싱턴판 세가지 중 하나만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을 뿐, 다른 신문들은 더러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고 있으므로, 과연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자신 있는 논평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스럽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한 최신 영문 뉴스 번역 서비스(무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주요 미국 신문들은 열심히 접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을 때 신문과 시사 잡지의 제작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몸이라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의견이 없을 수 없다.

신문과 방송을 제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고, 언론 활동이 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감히 부족한 점, 개선할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첫째, 신문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독자들이 신문에 기대하는 기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믿음직한 기사를 통해 알고 지내야 될 정보를 전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에 수입 쇠고기 문제로 MBC가 그릇된 보도를 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심각한 오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 하나는 주요 신문의 편집국들이 기자들의 기사에 대한 정확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기사 작성

의 ABC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궁극적 책임이 편집 데스크에게 있지만, 미국서 말하는 '카피리더' (Copy Readers)들이 전문적으로 이 작업을 맡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나는 뉴욕 타임스의 편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카피리더'들이 수십 명 모여 앉아서 일하는 장면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서울에 특파원으로 와있던 친구가 본사로 전근되어 '카피리더'로 활약하고 있었던 것



秦哲洙 ·在美 언론인  
· USA Briefing 대표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갈 때 결국 독자들은 신문을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일부 독자들은 신문 기사는 아예 제멋대로 만든 것이고, 돈을 먹었다거나, 어느 정파를 위해 썼다거나, 발행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습성을 갖는다.

기자의 사견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높이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신문 제작상의 큰 실책이다. 신문 제작의 과정이나 고층에 무관심한 일반 독자들은 신문을 대할 때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가 많다.

보도와 논평의 구별은 그러한 독자들의 의심이나 곡해에 대비하기 위한 신문들의 자위책이다. 예컨대 뉴욕 타임스는 '리버럴'한 신문이라는 평을 듣는다. 타임스의 입장은 무엇일까. 뉴스 페이지들의 기사들은 중립적이고 정확하며 균형이 잡혀 있다고 자부할 것이다. 사실과 칼럼들이 실리는 오피니언 페이지들은 전연 별개의 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리버럴한 의견 일변도로 나가다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보수적 의견을 가진 칼럼니스트들도 하나 둘 정기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반대로, 보수적인 신문으로 알려진 월 스트리트 저널은 사실과 칼럼들과는 판 판으로 기사들이 중립적이고 정확하며 균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최근에 주인이 바뀌면서 그러한 체제에 동요가 생겼지 모르

는다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요즘 한국의 좌경 지식층은 3대 일간지들을 보수 세력의 기관지처럼 취급하려 들고 있다. 그런 상황일수록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논평과 확연하게 구별된 뉴스 지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取材源 확인 등 記事의 正確性 철저관리 책임감·자부심 갖는 직업의식 확립 필요

이다. 이 작업의 핵심은 "취재원"을 정확히 밝히는 일, 즉 'Attribution'의 확인에 있다. 누가 말한 것을 근거로 기사를 썼는지가 분명해야 된다. "... 것으로 알려졌다"느니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느니 하며 불투명한 Attribution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기자들이 직업의식 (Professionalism)을 저버려도 된다는 식밖에 안 된다.

일이 아마 신문의 장래를 살리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훌륭한 기사를 늘 접하면 독자들은 좋은 신문을 알아주게 되고, 국민들의 판단이 건실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면 규율과 훈련과 책임감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보도와 논평을 구별하는 장벽을

2면으로 이어집니다

## 첫 言論人葬 엄수

李琮熙 회우 별세

고 이종희(李琮熙) 회우의 영결식이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서울직십자병원에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은 조창화 회장 취임 후 전체 회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언론인장'으로 엄수됐다. 향년 77세.

조 회장은 조사를 통해 고 이종희 회우의 35년 언론생활을 회고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빌었으며, 정운종 행사집행위원장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 회우의 빈소에는 본회 회우를 비롯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옛 동료들이 찾아 그의 넋을 위로했다. 영결식에는 조창화 회장, 신동철 문명호 부회장, 정운종 행사집행위원장, 한영탁 김건이 이사, 고덕환 심재복 회우,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참석했다.

1933년생인 이 회우는 김복례(74) 여사와의 사이에 4남을 두었다.



故 이종희 회우



故 이종희 회우 영결식에서 조창화 회장이 조사를 읽고 있다.

## 우리의 主張

## 방송 분별력있게 다시 태어나야

요즘 식자층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방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방송이 국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과 부작용을 바로 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래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부도덕 퇴폐 저질성과 방송의 지나친 상업주의적 행태가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진 좌파정권 10년 동안 프로그램의 부도덕성과 퇴폐 저질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까지 통째로 흔드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된 것이다. 방송이 이래도 되는가?

방송의 시설 장비 시스템은 최첨단 최고로 갖추어 놓고, PD 기자 아나운서 등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허우대나 능력은 어디 내놓아도 빠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돼서 그 지경이 됐을까?

그것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을 채우고 있는 알맹이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껍데기가 아무리 그럴듯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썩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비뚤어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설 장비가 최첨단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허우대가 멀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신세계가 저급하고 망령된 혼(魂)의 지배를 받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프로그램 제작에 혼신을 기울이던 PD들이 있었다. 사흘이 멀다하고 전화기가 놓여있는 책상 위에서 새우잠을 자며 뉴스를 지키는 기자들이 있었다. 방송의 시설 장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봉급도 얼마 되지 않았고 별도의 근무수당이 라는 것은 애기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

절이었다.

그처럼 열악한 제작여건 속에서도 당시 PD와 기자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 속에 모든 역량과 혼을 넣기 위해 침식을 잊고 몰두했다. 부실한 장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보니 일에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제 때에 먹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처우가 문제가 아니었다. 오로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방송이 그러했다. 국가안보 경제발전 사회안정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고 안보 경제 사회의 기틀을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던 시대를 우리는 흔히 권위주의 시대라고 한다. 물론 그때의 방송은 정부가 의도하는 안보 경제 사회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동원됐던 것도 사실이다.

역대의 연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지금의 영악한 방송 후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권력의 방송 장악이었다고 폄훼(貶毀)하고 타매(唾罵)할지는 모



李 哲 熙

- 본회 회우
- KBS 보도국장
- 국제방송 국장

빨갱이들이다.

좌파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송을 통한 그들의 활약과 실적은 도드라지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의도와 모습은 숨긴채 어리석은 자들을 부추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둘째는 인권이니, 민족이니, 방송의 민주화니, 보도의 공정성이니 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휩쓸려 조직 세력의 공작에 이용 당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언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것인지, 나라 망해 먹을 일인지조차 모

무엇이 그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첫째는 방송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하려는 조직적인 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방송의 막강한 전파력(傳播力)을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산화 혁명공작에 앞장선 진짜

각으로 왜곡하기 일쑤였다.

셋째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몇 사람의 우익논객을 제외하면 국가의 지도자든 영향력 있는 원로든 정치인이든 국가관과 시국관이 뚜렷하고 용기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 서울 한 복판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가 생겨도, 경찰관이 데모대에게 끌려가 매를 맞아도, 경찰 버스를 때려 부수고 경찰이 장비를 빼앗겨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 하나 없는 '小人輩들의 난쟁이 나라'가 돼버린 느낌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은 그러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용기있는 사람,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사회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학생들의 시위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저지선(Police Line)을 뚫고 과격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이 7명이나 사살된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초상집 같았지만 당시 미국의 신문 방송, 여야 정치인, 법조계, 시민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과격 시위가 비극을 불러왔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의 편에 섬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

미래를 향한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눈앞의 비극과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미

국 사회의 성숙성과 저력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도 이제 길게 앞을 내다보고 오늘의 좌파와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성숙해져야 할 때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 신문, 여야 정치인, 법조계, 지식인들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특히 가장 영향력 있고 파급 효과가 큰 방송을 망국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공작원이나 그들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 얼치기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무엇보다 먼저 방송이 분별력 있고 성숙한 교양인이 지배하는 민을 수 있는 매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가 正體性 · 安保문제까지 뒤흔든 행태 불식  
권력의 나팔수 아닌 國法 질서 확립에 기여를

르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이 국가안보 경제발전 사회안정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이바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때대로,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철저히 좌파 중심으로 기울었던 방송에 대해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면에서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대로라면 과거의 방송은 국가발전 위해 북치고 장구친 국가진운(國家進運)의 나팔수였고, 오늘날의 방송은 나라를 망치는 일에 뛰어들어 덩달아 팽과리 치고 춤추는 국가장송(國家葬送)의 나팔수인 셈이다.

르고, 조종을 당하면서도 날뛰는 얼치기들이다.

그 얼치기들은 국법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려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데모대와 불법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공권력을 똑같이 1 : 1로 보는 바보들이다. 심지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는 과격분자들이 전경을 붙잡아 옷을 훌쩍 벗기고 못매질을 가해도, 데모대가 폭도로 변하여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집단 공격해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데모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데모대를 구타했다느니 인권을 유린했다느니...하는 식으로 도치(倒置)된 시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언론이 탄압되고 통제되는 바람에 기자들은 알고 있는 소식도 기사화하기 힘든 때가 많았다. "기자의 창" 등으로 불리는 기자들의 짧은 에세이가 박스로 실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시대의 유물인 것 같다. 고난과 투쟁을 거쳐 언론이 자유로워진 요즘에는 그런 박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독자들이나 편집 책임자들은 기자들이 보도에 전념하여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시대에 요구되는 신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싶다. 광고가 줄어드는 등 인터넷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신문들이 미국에도 많다. 인터넷은 여러가지 좋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매체 문화의 저속화, 혼란, 혼탁에 신문들이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요 신문들의 홈 페이지 편집이 본지의 판단력이나 품위를 반영함으로써 잡다한 포털과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과의 차별화를 대담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일류 신문들은

그러한 작업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다시 MBC의 쇠고기 물의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주요 신문들은 뉴스 미디어들의 보도 자세나 제작상의 기질을 좌우하는 Professional 풍토를 조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국의 경우에도, TV 네트워크들이나 잡지 기사들의 경우 제작 취지와 방향이 미리 정해지고 취재와 제작 실수가 뒤따라 가는 상황 때문에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폐단이 없지 않다.

다섯째, 비리가 일상화 하려 하고 민

주화와 선진화의 실현에 지장이 많을 때, 올바른 세계관과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어 메리트크래시(Meritocracy)가 교육과 경제의 발전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때, 주요 신문들의 잠재적 역할은 막중하다. 신문들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며, 고민하고 반성하고 전진해야 할 때이다.

(필자 경력: 서울대 영문과, 아메리칸 대학 신문학 석사,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동 편집국장 대우 취재 부국장, 관훈클럽 초대 총무. usabriefing@verizon.net website: www.usabriefing.net 무료)



# 左派 뿌리 뽑아야 放送 바로 선다

지난 8월 12일은 한국방송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다.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 아무개는 체포돼서 검찰조사를 받고, 정부와 맞장을 떠온 MBC의 엄 모사장은 뉴스테스크 말미에 'PD수첩' 허위보도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공영방송의 위기로, 방송 저널리즘의 종언이다.

한 마디로 우리 방송은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 2002년 효순 미선양 사망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방송, 2007년 BBK 사건 공방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방송 보도는 구원투수로 나섰다.

석 달 넘게 계속된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때에도 예외없이 반미 반정부 투쟁이라고 하는 '진보적 여론' 조성에 총대를 맨 것이 공영방송 아니었던가. 수치(羞恥)를 아는 것은 군자의 도리다. 부끄러운 것을 모를 때 우리는 후안무치 또는 철면피라고 부른다.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은 기아, 극도의 피로, 안전을 빼앗는 다른 자극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를 쉽게 굴복시킨다. 선전 선동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거짓일 때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방송의 존재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편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방송이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그리고 조직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공산당의 주구'와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비판적인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사들은 말한다. "촛불시위와 쇠고기 파동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으면 '미친 소'가 아니라 '미친 방송'처럼 보인다"고. 2억80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어도 단 한 사람 광우병에 걸린 일이 없다는 쇠고기를 둘러싸고 우리 국민은 무슨 호열자나 페스트 전염병이라도 창궐한 듯 '황당무계'한 쇼를 벌였으니, 이게 모두 누구 책임인가?

설령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해도 방송이 이처럼 '분탕질'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시청각에 호소하는 TV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 매체가 갖는 '권위'로 인해서 국

민들은 보도내용을 쉽게 믿는다. 방송의 메시지는 마음 속에 내재화되는 경향이 있다.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겉으로 드러난 좋은 뜻과는 달리 양대 방송사의 반복되는 '풀무질'로 민심을 오도하였고, 마침내 여론은 결집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다.

국민을 꼭두각시로 만든 방송, 특정 이념에 사로 잡혀서 선전 선동의 나팔수로 전락한 방송,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된 방송이 사장 퇴진을 둘러싸고 이제 와서 '공영방송' 사수(死守)를 외치고 있으니 '화려한 추상어'가 그럴싸 하다.

좌파들의 구호에 등장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듣기 좋은 미사여구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특성을 가졌다. 필요하면 상대방이 할 법한 소리를 자기가 먼저 쳐들고 나온다.

일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적반하장의 논리가 단순 명료해 보여서 사람들은 속기 쉽다.



金 寓 龍  
한국외대 명예교수

일제하의 민족지는 '감옥에서 펴내던 신문'이라고 평가해야 옳다. 족벌 언론도 마찬가지다. 좌파들은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태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가 결정할 문제이다. "돈 낸 사람은 경영에서 손 떼라." 이 말은 자본가를 자선사업가로 착각한 데서 나왔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면 방송사 허가가 우선적으로 나온다. 경영의 책임성과 논지의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방송 저널리즘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과거 신문 방송은 '동업자'라고 하여 서로의 허물에 눈을 감고 있었다. 침묵의 카르텔은 청산되어야 할 유산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래 권력은 편가르기를 조정해서 정치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대신 '미운' 신문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KBS MBC는 주인 없는 회사로 표류해 왔다.

균형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자는 오로지 사건의 냉정한 관찰자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방송 기자나 앵커는 곧장 해설자 논평자로 나선다. 미디어와 미디어 종사자가 특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억지논리를 펴고 뻘뻘스런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그를 사이비 기자라고 부른다. 사이비 언론의 특성은 '선택적 보도'에 있다. 선택적 보도는 나치 선전수법의 하나로 어떤 기사는 취재하여 보도하고 어떤 기사는 멋대로 제외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칭찬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감정을 섞어서 보도하게 되면 수용자의 무의식 속에는 강화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KBS와 MBC의 미친 소와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보면 '선택적 취재보도'가 뚜렷이 나타난다. 예컨대 경찰의 과잉진압은 크게 보도하고 폭력 불법 시위는 다루지 않게 되면 정부는 '나쁜 놈'이 되고 시위대는 '좋은 놈'이 되고 만다. 이런 방송을 '이상한 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촛불문화제라는 말 속에도 전형적인 선전수법이 숨어 있다. 시위나 데모라고 해야 할 사태가 '문화제'로 미화돼서 불린다.

노래와 춤판이 벌어지고 자유발언이 이어져도 데모는 데모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여과 없이 이를 '문화제'로 다룬다.

이를 완곡어법이라고 부르는데, 유쾌하지 못한 현실을 더욱 기분 좋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선전술이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은 빗나간 시위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불법 폭력행위를 바로 잡는 일은 외면하였다.

KBS나 MBC는 법치주의와는 정반대로 나갔다. 민주사회의 질서수호자인 경찰을 무슨 '공적 1호' 다루듯 하였고, 일부지만 폭도들에게 동조하는 야당과 한 편에 서서 사회혼란을 부추겼다. 법치주의 실종은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종언이기도 하였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캐치프레이즈 '국민의 방송'이 한 날 구호로만 끝나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공영방송은 명실공히 국민의 결으로 돌아와야 한다.

왜곡방송, 편파방송, 노영방송을 청산해야 한다. 정파적 저널리즘의 기수, 이념의 나팔수 노릇을 거두고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이다.

왜곡방송, 편파방송, 노영방송을 청산해야 한다. 정파적 저널리즘의 기수, 이념의 나팔수 노릇을 거두고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이다.

## 「公營」 말뿐... 主人인 국민 쫓아내 편향된 理念 · 왜곡 · 편파 청산할때

과거 10년 언론 정책의 특성은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치게 만드는 '夷以制夷' 전법으로 일관되었다. 비판언론, 메이저신문에는 신문고시, 세무조사, 취재원봉쇄 등 탄압으로 일관하였고 친정부적인 마이너 신문과 방송에는 당근을 베푸는 시혜정책을 펴왔다.

나치 선전수법의 하나인 낙인찍기는 친정부적인 매체의 상투적인 술책이었다. 예컨대 조 중 동 메이저 신문을 공격할 때 항상 갖다 붙이는 표현이 있다. '친일 언론' '족벌 언론' 그리고 '수구언론'이란 딱지가 그것이다.

친일 언론이란 말은 언뜻 듣기에는 일제하에 총독부 앞잡이 노릇이나 한 것처럼 들린다. 하와이에 망명해서 내는 신문이 아닌 바에야, 그 당시 이 땅에서 내는 신문이 부분적으로 총독부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공과를 엄격히 따져서 평가할 일을 나쁜 말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방송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의식과 가치를 혼돈에 빠뜨렸다.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는 은혜 입은 자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충성을 십분 발휘토록 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프로그래에 끝없이 투입하였고 친북, 반미 좌파 이념이 보도의 기조를 이루었다. 전문성도 없고 방송철학도 없고 방송 경영에 대한 비전도 없는 인사가 공영방송의 수장을 맡아서 방송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이데올로기의 돌격대장이 정권의 버팀목을 한 탓에 국정 파탄, 가치 혼란, 무질서 사회라고 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

방송은 의식(意識)산업이다.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할 뿐 아니라, 잘못된 보도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앗아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보도는 객관성 형평성

동서문화사 www.epascal.co.kr ☎(02)546-0333

아뉘, 불가사리 대통령!  
**촛불보다 더 강한 시원한 일침!**  
개혁이냐! 혁명이냐! 이것이 문제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건너차이는 이유!  
한국을 죽이는데 칼이 필요 없다!

## 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

박헌태 지음

대통령은 ‘불사신, 불가사리’  
대통령의 수준, 국민의 수준(?)  
지도자의 자질  
과거 부정(否定)은 자해행위  
국가, 국민, 그리고 민족  
황혼에 접어든 독립주권국가  
대중문화, 대중사회  
종교와 언론은 ‘프로테스탄트 집단’인가  
교육부는 대학입학부인가  
정치자금, ‘어른의 논리’로 접근해야  
모처럼 맞이하는 대전환기  
‘한방’에나 매달리는 ‘요행수’ 사회  
‘니힐리즘’의 시대  
대통령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  
아랍을 다시 보자  
남한 언론과 북한 언론  
6·25는 무의미한 전쟁이었는가  
‘텔레비전 정치’를 뛰어넘자  
노인은 젊고, 젊은이는 버리고  
좌과정권의 퇴장  
고소, 고발이 정치인가  
국가의 품격



양장본 250쪽 값 10,000원

중국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  
경제 대통령  
정치적 안목을 기르는 방법  
‘아뉘, 불가사리 대통령’  
정치부 기자를 자원한 이유  
재벌 대통령  
중국의 황제  
북한 최후의 날에 관한 시나리오  
개혁이냐, 혁명이냐  
종교도, 정치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을 죽이는데 칼이 필요 없다’  
영어와 애국심은 별개 문제이다  
퇴임 후 시골에서 산다는 것  
‘대중’이라는 ‘사람들’  
미국 국민이 총을 가지는 이유  
선거보도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건너차이는 이유’  
우리 대통령을 예사로 ‘역도’라 부르는 북한  
‘콘티없는 드라마, 대한민국’  
대통령들이여, 열변을 토하라

동서문화사 www.epascal.co.kr ☎(02)546-0333 신국판 580쪽/값 15,000원



로버트 올리버  
(Robert T. Oliver)  
위스콘신 대학교 ph.D.  
시러큐스 대학 교수 펜실  
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명예  
교수. 이승만 대통령 정치고문  
(1942~1960)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6·25전쟁 수행  
과정 고군분투하는 이승만 박사를  
현신적으로 도왔다.  
지은책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한국의 비극』 『이승만과 국제연합』  
『한국전쟁 기원』 등이 있다.

## 나라세우기X파일 최초공개! 대한민국 건국을 김구 강력반대! 김일성 폭력반대!

이승만은 천신만고로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 번영을 가져왔다

姜英勳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쟁 폐허 속에서 민족을 구한 그분의 끝없는 열정의 애국심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金學俊 동아일보회장  
이승만대통령은 조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의 건설자요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한 선구자였다.  
朴鉉兌 전 KBS사장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주독립·자유민주·시장경제·자유민주통일이 영원히 유효함을 각인시켰다.  
柳永益 연세대 석좌교수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점 깊이 반성하고 그분의 진취적인 독립정신 나라사랑을 발굴 정립해야 한다.  
李仁榮 서울대 음대교수  
한국역사의 격동기에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분의 가르침이 아쉬운 요즘이다.  
李仁浩 명지대 석좌교수  
오늘날 정치현실에서 눈앞의 당리당략만 좇는 정치인들에게 이승만대통령과 같은 신념에 찬 애국심이 필요하다.  
崔銀姬 배우  
그분은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 오목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민족혼을 불러 일으켜 세운 분이다.  
韓雲史 작가  
가슴뭉클한 그분의 나라사랑만큼이나 이승에서 행복하게 고이 보내드리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이승만에 관한 많은 저술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릇된 내용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들이었다. 이제 여기 공산주의자들의 동아시아 정복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인간에 대한 그릇된 보도, 중상모략 등을 바로잡아 줄 신뢰할 만한 기록물이 나왔다. 이승만은 페어플레이·명예·국기심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갖춘 세계적 감각의 신사였다. 이승만은 땀별 아래 군중들에게 성실과 권위와 용기,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자주독립·애국심을 호소하였다. 올리버 박사는 이승만의 고문으로서 이박사의 많은 편지들과 기록물을 통해 정직하고 유능하고 현신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한 애국자이자 정치가인 인물을 그려냈다. 그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삼자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으면서 대한민국 근대사를 증언하는 기념비적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무조건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고 기록을 바로잡는 일 이외에는 이승만을 위한 변명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다.  
『미국사회과학아카데미』 학술지서평 조지 폭스모트

# 뜨거웠던 여름 ... 진흙탕 싸움과 올림픽 환호

## 신문시평

뜨거웠다. 날씨가 아니라 말싸움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진 날씨와는 달리 뜨겁기만한 진흙탕 싸움은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싸움의 직접적 대상인 KBS 정연주 사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잠잠해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의 거취가 경영문제에서 방송의 독립, 언론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끝을 내다보기 어려운 소용돌이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펼쳐 버릴 수 없다.

KBS의 정연주 사장 문제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난 2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빈도가 부쩍 잦아지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8월 초 들어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을 요청했고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자 신문들은 스트레이트, 해설, 칼럼, 사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거의 매일



이 병 국

- 본회 회우
-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구로 사용'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팽개친 방송장악 쿠데타'로 강력 비판하고 있는 반면, 동아와 조선은 '국민이 낸 수신료로 흥청망청 적자 경영을 한 무능한 경영자' '부실·방만 경영은 사장 목이 백 개라도 부족한 일'이라고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서울과 중앙 역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며 정 사장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다.

KBS 임시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통과를 놓고도 신문은 감사원 조치 때와 같은 상호 대립적인 논조를 보였다. 경향이 '자유화한 권력의 퇴행'으로, 한겨레가 '법적 근거 없는 원천무효'로 이사회의 해임안 제청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조선과 중앙은 '진정한 국민

## KBS사장 문제 정반대 시각 노출

### 先入見·가정에 근거한 論評 판쳐

같이 KBS 문제로 도배질했고 게재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신문에 나타난 모든 관련 기사를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8월 20일까지 KBS와 관련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한겨레의 사설 22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KBS 이사회 결정, 언론자유, 책임소재 및 후임 사장 등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각각 어떤 논조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을 요구한 다음날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찬반 논조를 폈다.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경향과 한겨레가 각각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

의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 '스스로 정치적 임명을 받은 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듯 위장'하고 있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서울 역시 '더는 그 자리에 눌러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졌다'고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을 옹호하고 있다.

신문 경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설이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달리 논설위원간의 협의에 의한 합작품이며 언론사별 소유권이냐 이념적 성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사설이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논란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하나의 뚜렷하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다룬다는 점이다.

| * KBS사장 거취에 대한 사설의 반응 |       |       |        |         |         |
|-----------------------|-------|-------|--------|---------|---------|
| 신문                    | 감사원감사 | 이사회결정 | 언론자유   | 책임소재    | 후임사장    |
| 경향신문                  | 수용불가  | 수용불가  | 심각한 후퇴 | 청와대     |         |
| 동아일보                  | 수용    | 수용    |        | 정연주 사장  |         |
| 서울신문                  | 수용    | 수용    |        | 정연주 사장  | 중립적 인사  |
| 조선일보                  | 수용    | 수용    |        | 정연주 사장  | 신뢰우선 인사 |
| 중앙일보                  | 수용    | 수용    |        | 정연주 사장  | 공정성/전문성 |
| 한겨레                   | 수용불가  | 원천무효  | 방송독립위기 | 청와대, 정부 |         |

\* 필자 분석 8월1일-20일

공란은 사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는 경우.

7면 신문시평으로 이어집니다

## 방송시평



오 건 환

- 본회 회우
- KBS스포츠 국장
-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중계방송이 있어 우리는 안방에서 경기에 참가한 선수와 함께 승리의 환희와 감격, 패배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올림픽이라는 인류의 축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은 오히려 축제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일이 계속돼 시청자를 짜증나게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은 한국 경기 위주, 성적 위주, 인기 위주의 중계방송이어서 낯 선 경기나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시청자의 불만이었다.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우리 중계방송을 보면 오로지 한국 선수만

지거나 실수를 하면 방송에서 써서는 안 되는 비속어를 내뱉기도 했다.

결국 과거의 인기 메달리스트를 해설자라고 앉히기만 하면 해설 내용과 관계없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겠다는 방송사의 알파한 속셈만 드러낸 결과를 빚었다.

시청률만 생각하는 방송사의 상업적 속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꼴불견은 인기 연예인을 동원한 사례다.

일부 방송사는 다투어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선수 인터뷰와 응원석 인터뷰, 심지어 해설석에 앉히기도 했는데, 경기와 관계없이 인기인을 등에 업고 시청률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속임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이 20살 안팎의 나이 어린 선수에게 고작 하는 질문이 "여자 친구 있느냐, 이상형의 여성은 누구냐"하는 천박성과 유치함만 보여주었다.

셋째, 스포츠 전문가, 방송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계팀이 디테일에서 일반 시청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 중계방송 캐스터·해설자 자질에 문제

### 人氣 앞세운 商術·천박한 인터뷰 눈살

올림픽에 출전한 것 같고 267명의 우리 국가대표선수 가운데서도 메달리스트 그것도 금메달리스트만이 올림픽에 출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개막 이후 중반까지 방송 3사 어디를 둘러도 같은 경기, 같은 선수만 나와 세계가 함께 하는 올림픽과는 거리가 멀었다.

메달권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아쉬움과 인간적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혼자 출전한 조정이나 카누는 물론 트라이애슬론 등 많은 경기 종목은 그런 것이 있었나 싶게 우리 중계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다양성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다.

둘째, 중계방송 캐스터나 해설자의 자질이 문제였다.

캐스터는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흥분해서도 안 되고 쓸데없이 말을 계속할 필요도 없다. 어떤 방송사 아나운서는 우리 선수가 유도에서 처음 우승을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금메달"이란 소리만 질러대 결국 목이 쉬고 계속된 중계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꼴불견을 보였다.

또 몇몇 경기인 출신 해설자는 아나운서와 함께 흥분해서 오직 "우리 선수들 잘 해낼 것입니다"란 소리만 질러 댔다. 심지어 선수들이 경기에

대회 이틀째 유도의 최민호 선수가 한판승으로 우승하고 감격에 겨워 메트에 앞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패자인 오스트리아 선수가 다가가 일으켜 세우면서 최 선수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요 올림픽 정신의 정수였다.

그런데 우리 중계 캐스터는 모두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느라 이런 중요한 모습을 일깨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이 흐트란 얘기를 퍼 나르고 다음날 신문에 보도되자 각 방송이 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넷째, 편성 때문에 결정적 경기 장면을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18일 밤 SBS의 경우였다.

모든 시청자가 숨죽이며 여자장대 높이뛰기 이신바예바 선수가 자신의 25번째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SBS는 정규방송 관계로 신기록 수립에 관한 소식은 내일 뉴스에서 전한다는 말과 함께 무자비하게 중계를 끊어버리고 광고로 돌아 섰다.

방송 3사중 그나마 전 세계인이 관심을 보였던 경기를 SBS가 유일하게 중계하고 있었기에 시청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7면 방송시평으로 이어집니다

Hi Seoul  
SOUL OF ASIA

# 다시 만든다기 보다 다시 찾는 것입니다

# 퍼미

600년의 자부심을 여는  
光化門광장

2009년 6월! 광화문광장의 새 모습, 기대해주십시오!

600년 전 한양의 중심거리였던 세종로의 새 모습을 다시 찾겠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던 자리는 시민의 발걸음과 녹지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옛 고도(古都)의 자부심과 첨단의 신비가 잘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주십시오!

溫故知新

# 右派 정신 차려야 한다

세상은 戰國시대다.

탈냉전후 과거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陣營이란 것은 희미해졌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나 최근의 그루지아 사태에서 보듯 국지적으로 各自圖生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일본 전국시대를 비정한 무력으로 통일해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일부 막료들로부터 유화책을 건의받았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 이치(市)는 "戰國의 시대에는 戰國의 理致대로 살아갈 뿐"이라고 오빠의 정당성을 변호했다.

각지도생은 우경화가 필연적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은 中國 민족주의의 섬뜩한 표현이다. 태평양 전쟁을 재평가하는 일본 우익은 조만간 일본의 대표얼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변 우경화의 와중에서 별 힘도 없는 대한민국만이 지난 10년간 좌경화라는 시대착오적 길을 걸어왔다. 그것도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데도.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



金 哲

• 본회 회우  
• 국민대 초빙교수

되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해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서의 토론이란 것은 우과는 좌과를 '從北主義者'라고 비난하고, 좌과는 우과를 '反民族외세의 존론자'라고 매도하는 저질이다.

左右 모두 웃기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좌과는 그

그름에 관계없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不誠實이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제 1차 세계대전 베르덴 전투에서 소대장을 살해한 병사들의 사면을 거부했다. 伸冤을 요구한 유족들에게 80여년이 지났으나 "프랑스는 그 때도 프랑스고, 지금도 프랑스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방어하지 못한 이곳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된다.

세 번째, 北核문제다. 북한은 핵의 저지력(Deterrence)과 강제력(Compellence)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핵을 보유했기에 저지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實戰배치)을 추구하면 즉각 공격받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저지력만으로 대미협상의 물꼬를 텠다.

미국은 북의 저지력 단계는 눈감아 줄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일정 정도의 관계설정 성공하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듯이 살금살금 강제력 단

5면 신문시평에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감사원이나 KBS 이 사회의 결정과 권고가 옳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렇다면 상반되는 두 견해를 모두 소개하고 소속사의 사시나 이념적 성향에 기초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길일 것이다. 그러나 KBS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논조는 신문에 따라 서로 다른 두 부류로 갈라져 명백한 대립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동아 조선 중앙이라는 집단과 경향 한겨레 집단 사이의 사설에서는 팩트의 균형된 소개와 자사의 의견 제시라기보다는 '된다' '안 된다'라는 선입견과 가정에 입각한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의 논쟁은 기본적인 언론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카뮈(Albert Camus)는 언론다운 조건으로 매우 힘든 두 가지 조건, '고의적인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과 어떤 종류의 억압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라 했다.

정치적 동기에 따라 신문이 유유상종으로 일관하고 신문 간에 아집과 무례함 같은 것만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일이다.

5면 방송시평에서 이어집니다

21일 밤에는 MBC가 미국과 일본의 야구 연장 10회 경기를 보여준다면 야구 경기장을 연결해 10회 초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서려 할 때 쑥스러운 표정의 여자 캐스터가 나와 오늘 방송을 끝낸다고 결과는 내일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라고 중계를 끊어 준결승전에서 우리와 겨룰 상대팀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끝으로 입만 열면 국민의 방송이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올림픽 중계를 광고방송 속에 묻혀 있는 2TV 중심으로 편성해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반드시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며 단편적인 올림픽 중계방송 시청 소감을 밝힌다.

## 철저한 自省으로 도덕적 不實 벗어나야

다. 유럽문제는 독일문제라는 것이다. 강대한 독일은 두 번의 大戰을 일으켰다. 나토는 소련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초대 사무총장 이즈메이엠히는 "나토의 목적은 러시아를 막고, 미국을 붙들어 두고, 독일을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동북아의 문제는 너무나 허약한 한반도였다. 日・清, 日・露전쟁, 한일합방, 6・25로 이어졌다. 독일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해당 지역의 말썽이었다.

그런데 戰國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고 있다.

지난 10년간 '對北조공'만 바치다 보니 分斷의 역사성과 현실성이 총체적으로 왜곡되었다. 왜곡은 순차적으로 다른 왜곡을 낳기 마련이다.

'民族'이란 원래 우과의 정치적 무기인데, 이 나라에서는 좌과의 전유물이

가치의 선상에 있는 북한의 人權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安保至上이라는 우과는 관광객이 살해됐는 데도 조사도, 요구도, 처벌도 꿈도 꾸지 않고 있다. 개성관광을 그대로 두는 무신경의 극치이다.

좌과의 실체는 공히 허구다. 自意識이 없다. 그 때문에 좌과는 정신분열증이고, 우과는 無機質이다.

좌과는 그만 두고, 우선 해방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이끌어온 우과가 각지도생이라는 시대적 그리고 지정학적 요구를 주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자.

우과의 문제점은 네 가지다.

첫째, 도덕적 不實이다. '잃어버린 10년'은 주로 우과의 도덕적 부실에 기인했다. 단적으로 가진 자가 병역을 기피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不在는 최근 '강부자' '고소영'으로 이어졌다. 우과의 도덕적 회개가 없이는 촛불이 옳고

계로 이행할 것이다. 그 때 남북관계는 치명적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독도도 문제만 만들었다. 戰略과 功力이 수반되지 않는 '항의 민족주의' '데모 민족주의'와는 긋바이해야 한다.

넷째, 실용주의는 국가 指導 綱領이 아니다. 그것은 條目일 뿐이다. 그것은 국가통치를 商業主義 차원에서 이해한 치졸한 처사다.

### 고 침

지난 8월호 11면 「溫故知新」란에 게재된 '늑음의 증후군' 제하의 글중 맨끝 문장 3행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현대의 한 저명한 물리학자는 지구는 앞으로 2억년은 더 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렇다면 2억년후에 기억될 사람은 몇사람이나 될 것인가."

언론인이 가장 많이 읽는 언론전문지 월간<신문과방송>

www.mediagaon.or.kr

## <신문과방송>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알찬 정보 바른 비평, 국내 유일한  
언론전문종합 월간지입니다.

- 44년 전통의 언론전문지 <신문과 방송>
- 깔끔하고 비주열한 편집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언론사 입사를 꿈꾸는 예비언론인들의 필독서입니다

구독신청 신문과 방송 (02-2001-7867) e-mail press@kpf.or.kr

한국언론재단



양양 남대천에서 낚시를 즐기는 金鏤 회우.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

회우탐방

金鏤

· 동양방송 사회부장  
· KBS 전문위원  
· (사)황학정 고문

탐방취재 崔熙助 본보 편집위원(중부대 초빙교수)

그는 은퇴 후 강원도 양양에서 부인과 둘이서 5년째 살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양양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동양방송(TBC) 사회부장 출신으로 북한의 거물급 위장 귀순 간첩 이수근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金鏤 회우를 8월 11일 양양 자택으로 찾아가 만나 보았다.

# 낚시하며... 활쏘며... 悠悠自適의 삶

서울 동부 버스터미널에서 양양행 버스를 타고 3시간 30분 걸려 도착, 양양터미널에 마중나와 기다리던 그의 안내로 터미널에서 걸어서 불과 2~3분 거리의 자택으로 갔다.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대문 안쪽에 ‘불 가스 확인’이라 써붙인 종이 한 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외출하면서 전기와 가스 불은 잘 끄는지, 잊지 않기 위한 것임을 단박에 알아 차릴 수 있었다. 그의 생활 모습은 첫눈에도 지극히 서민적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필요치 않아 보였다.

집안이 어수선 하다면서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협소해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는 김회우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각종 상패와 기념패가 장식장 위에 촘촘히 놓여 있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활동을 벌였었는가를 말해 주고 있는 듯 했다. 작은 방 한 쪽에는 내리닫이로 써놓은 행서의 휘호가 여러장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일제강점기 평양사범 다닐 때 배웠는데, 그동안 자주 쓰지 못하다가 요즘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1928년 평양 근교 강서에서 태어났다. 올해로 만 80세. 보청기를 하고있는 것 외에는 연세에 비해 강건해 보였다. 양양에 노후 동지를 둔 연유를 설명해 주었다.

“처음엔 제주도 서귀포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현지 답사를 하고 최종 결정하려는 단계까지 갔지. 그런데 분가해 사는 자식들(아들 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내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였어. 그래서 다시 물색해서 정한 곳이 강원도 동해야. 서귀포도 그렇고 동해에도 모두 낚시터와 활터가 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어. 내가 그 두 가지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 집사람도 좋아하고 말이야.”

그러나 동해에서 한 1년 살다보니 활터가 집에서 가깝다 해도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여서 좀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활터와 집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 없는가 싶어 동해시에서 강릉, 주문진, 속초 등지를 이곳 저곳 살펴 보다가 양양에서 그런 곳을 찾아 정착하게 됐다. 아파트 바로 옆에 서울을 오가는 버스터미널이 있고 낚시

터와 활터도 모두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더 바랄나위가 없었다. 낚시터는 연어 회귀로 유명한 남대천이고 낚시터 바로 근처에 활터가 있다. 활쏘기는 낚시보다 배워기 시작했는데 초단 정도 수준. 낚시는 주로 혼자 하지만 활쏘기는 부인도 함께 한다. 탐방하던 날 남대천에서 그가 낚아 올린 은어로 집에서 만든 튀김을 부인이 내놓아 먹어보니 그 뒷맛이 수박향이 나는 별미였다.

은어는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하며 오염된 물에선 살지 못하는 물고기로 분류된다. 어릴 때 바다에 나갔다가 하천으로 돌아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에 산란하는데, 산란기엔 낚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가 공기 좋은 지방을 은퇴후 생활 터전으로 삼게 된 데에는 취미생활도 생활이려니와 병치레를 했던 부인을 위한 배려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다섯 살 아래

서울 가서 살 마음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서울에 가면 아무래도 공기가 시골만 못하고 모든 게 답답하다는 이유다.

부부가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고 예전 기자 때 이상으로 시시비비가 분명하다. 미국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촛불집회 얘기가 나오자, 그게 어디 MB(이명박)정권 타도 목소리를 내야 할 정도의 이슈이고 걸핏하면 불법 폭력 시위를 하며 수도 한 복판을 마비시켜야 할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으론, 지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MB정권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친북 좌파 정권에서 보수 우익 정권으로 넘어 왔는데, MB정권이 지난 10년을 가볍게 보고 별 준비 없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고 비판



金鏤 회우가 본인

## 부인 건강 위해 공기좋은 곳 찾아다니다 定着 “특정이념에 매몰된 TV방송 볼때마다 울화통”

인 부인 광정수 여사와는 1954년 결혼해 올해로 54년째이다. 광 여사의 출생지는 평안북도 정주. 서울에 사는 두 아들 사이에 손녀 넷을 두고 있다. 밤과 낮이 따로 없는 방송기자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느냐고 부인에게 묻자, 기자는 남편감으로 는 낙제라고 말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귀가하기 일쑤고 생활비도 제대로 집에 가져오지 못하는데 일등 남편이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 남편만 바라보고 살기 어려워 빚을 내서라도 땅이나 아파트 등에 투자해 요즘 말로 재테크를 하려 해도 그 건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남편이 엄명을 해서 엄두도 못냈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 노부부의 양양 생활은 주위에서 보기에도 샘이 날 정도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이다. 부부는 한 목소리로 다시

했다. 부인이 더 큰 목소리로 이에 동조했다. 오히려 남편보다 더 저널리스트한 기질을 보여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공영 TV방송에 대한 심기는 더 불편해 보였다. TV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질 때가 많다고 했다.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의 거점이 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정론을 펴야 할 매체로서 정파성을 띠고 왜곡 편파 보도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은 정상이 아니며 일반 대중은 그런 언론에 의해 마취에 걸린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실에 놓여있던 대한언론인회에서 보내온 8월호 회보 맨 앞 페이지의 南時旭 宋復대담을 가리키며 읽어보니 내 생각과 같더라고 동감을 표시했다. 몸은 자연에 내맡겨 속세를 벗어난 듯 살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

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지는 못하는 생각을 해봤다.

김집은 평양사범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의 항복 방송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48년 고향 등지고 단신 월남했다. 북한 보위부의 치안 사상검증 과정에서 숙청위기에 처해 유를 찾아 내려왔다. 6·25 전쟁 중 유입돼 6사단 7연대 사병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한때 고향 땅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해 올라가기도 했었다.

그가 방송기자가 된 건 제대후 대구에서 기자를 거쳐 1964년 라디오서울(뒤에 방송·TBC에 통합) 개국과 동시에 입사하면서부터. 입사 3년뒤 1967년 3월 22일 시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이 귀순하면서 월남 귀순한 사건을 특종 보도해 1회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았다.



峴山亭에서 활쏘기를 즐기는 金鍊 회우.



이 쓴 글씨를 설명하고 있다.

이수근은 뒤에 간첩으로 위장 귀순했던 것으로 드러나 처형된 바 있다. 판문점을 오래 출입했던 그는 그 때의 특종 보도과정을 회고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금도 40여년 전의 그 때 상황이 바로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동양방송에서 사회부장과 논평위원을 지내고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한국방송공사(KBS)로 넘어가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1988년 정년 퇴직했다. 그뒤에도 대북심리전 방송을 하던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일을 보다가 김대중정권 때인 1998년 북한 비 판프로그가 없어져 방송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고향을 떠난지 어언 60년. 그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죽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이 숨지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행 버스가 양양 버스터미널을 떠나는 순간까지 배웅의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잘 가라고 손짓을 하던 그의 모습이 두고 두고 지워질 것 같지 않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의 최근세사를 장식하며 살아온 그야말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번듯하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된 애국자 중의 한 사람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 老年期 변화되는 여성의 몸과 마음

알림

### 제3회 '성 건강강좌' 개최

9월 20일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



이 윤 수 박사

제 3회 이윤수 박사의 '성 건강강좌'가 오는 20일(토) 오후 3시부터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노년기 변화되는 여성의 몸과 마음'으로, 회우들이 부부 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 줄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올 이윤수 박사는 "갱년기 여성 특히 노년기 여성은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성적인 욕구는 지속되므로 남성은 여성의 신체 변화 등을 이해하고 여성을 잘 리드한다면 노년기 부부생활도 즐거울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강좌가 회를 거듭할수록 회우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성 강좌에 대한 편향된 의식들도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이며 많은 회우들이 강좌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며지고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윤수 비뇨기과'와 협약을 맺어 이 박사에게 회우들의 '주치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한편 본회는 강연이 끝난 후에는 인근에 있는 휴게실에서 정겨운 간담회를 갖고 주말 오후 한 때를 즐기고 있다.

## 기자가 바라 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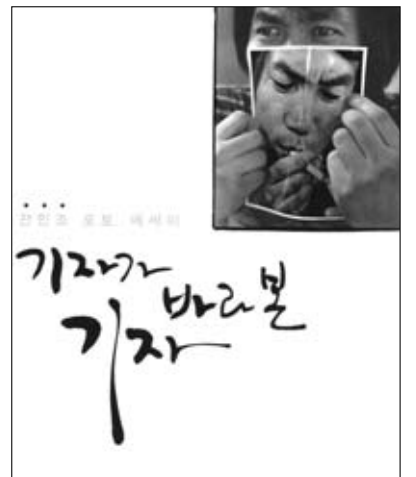
田敏照 회우 사진전 · 사진집 발간



전 민 조 회우

회를 축하했다. 사진전시회는 9월 2일까지 열린다.

〈기자가 바라 본 기자〉 포토에세이는 1970년대부터 전민조 회우가 찍어 놓은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모습 180여점과 사진에 얹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민조(田敏照)회우(전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의 〈기자가 바라 본 기자〉 포토에세이 출판 기념회에서 송호창(전 동아일보 사진부장)회우와 조강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우가 각각 축사를 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선 조창화 회장이 축하 난을 보내고 출판 및 사진전시

## ‘21세기 공영방송의 의미와 기능’ 세미나

박선영 회우, 지난 8월 20일 국회귀빈식당서

박선영(朴宣暎) 회우(자유 선진당 대변인) 주최로 지난 8월 20일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21세기 공영 방송의 의미와 기능'을 주제로 제 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운식 교수(강원대 신문방송학과)가 '다매체시대 공영방송의 의미와 기능'을, 강형철 교수(숙대 신문방송학과)가 '세계의 공영방송과 KBS가 나아갈 길'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윤영철 원장(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심재철 교수(고려대 언론학부), 김현석 기자(KBS 기자협회 회장), 김세은 교수(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 귀빈식당서 열린 '21세기 공영방송의 의미와 기능' 세미나.

# 대한민국 建國外交史 정확하게 기록

## 書舍餘話 ④

### 臨政에서 印度까지

임병직 회고록 (외교안보 연구원 刊)



林 德 圭

- 본회 회우
- 11대 국회의원
- Diplomacy 발행인



외교전문 영문 월간 <Diplomacy>를 75년에 창간하여, 34년간 대통령·수상·왕 330여명 등을 직접 인터뷰한 나는 저명인사로부터 많은 책을 선물 받아 내 서가(書架)는 귀중한 책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은 임정(臨政) 구미위원부 의장 비서, 2대 외무장관 (1948.12.25~1951.4.15), 주 UN대사를 역임한 임병직(林炳稷) 대사의 회고록 <임정(臨政)에서 인도(印度)까지>다. <임정에서 인도까지>는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 1차 한인대회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비서가 되어 독립운동, 건국, 6·25 등 역사의 격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를 수행한 임병직 박사(1893~1976)의 대한민국 건국 외교비사로 건국 60주년을 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독을 권할만 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 회고록이라기보다 1893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활발하게 벌여졌던 독립운동 외교와 2차 대전 종전후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하기까지 미국과 UN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외교사의 실록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1963년 9월부터 임병직(林炳稷) 박사를 무보수로 10여년간 보좌하며 임 박사가 이 책을 정리하기 위해 사실을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미국측 자료와 다른 저술에 의해 임 대사의 기록이 모두 정확한 서술이었음을 확인했다. 이 책을 정리하던 임병직 대사는 동국대와 서강대에 출강하며 신아일보 동화통신 논설위원이었던 나에게 “밥만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 잡지를 만들어 미국 사람을 설득하면 나라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하여 전화와 집을 잡히고 은행돈을 빌려 영문 월간 <Diplomacy>를 창간했다. 필자는 임병직 박사를 모시며 철기 이범석 장군, 윤치영 박사, 임영신

박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났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노력, 돈과 생명까지 바쳐야 한다’는 신념이 철철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정에서 인도까지> 14장 578면에도 그런 정신이 전편에 깔려있다. 임병직 대사의 회고록 중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중의 UN과 대미외교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1945년 이승만 박사가 환국한 후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장으로 활약했던 임병직 대사는 이승만 박사의 지시에 따라 UN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추진했다. 미국 중국 영국은 2차대전 종전처리 논의과정에서부터 일본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의 독립국가 수립은 식민지 국가가 많았던 대영제국의 눈치를 보는 미국의 입장에 모호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얼버무렸다. 알타 회담에서부터 흘러 나온 신탁통치 필요설이 모스크바 3상회

장의 의례적인 답신이 왔을 뿐,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 정책이 지속되자 이승만 박사가 46년 12월 워싱턴으로 와서 목사 변호사 언론인 등의 협조로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결의문 등을 발표하자, 미국 언론과 여론이 반공적인 한국 정부 수립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이 박사는 미국 여론이 호전되자 임 대사에게 국무성과 UN에 한국독립정부 즉시 수립을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사는 1947년 11월 13일 UN총회에 한국정부 수립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미 국무성 법률고문, UN사무총장, 영국 수상 등을 만나 한국 독립을 호소한 전망을 소상히 전하고 있다. 임병직 대사는 이승만 박사의 YMCA전문부 제자로 평생을 이승만 박사의 외교를 위해 헌신했다.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President)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8일 “한국에 적합한 정부가 세워졌으니 일본 군대 및 일본 관리와 일본인은 철수하라”는

일본 왕에게 보내는 국서를 워싱턴주재 일본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시작한 임 대사의 공무는 6·25 전후처리까지 계속됐다. 첫 공무로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대사업무를 대행하던 히로타 고우키 일등서기관에게 “유관순 같은 어린

## 信託 반대 단독정부 수립 노력 조명 UN에 의한 UN의 위대한작품 확인

담에서 “한국은 5년간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방 정국에서 국내 좌파의 준동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이렇게 좋지 않았다.

임병직 박사는 제 9장 ‘정부수립을 둘러싼 투쟁’에 미국 언론 종교 법조 의회를 통한 대미 민간 외교로 UN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다. 임 박사는 이 박사의 미국의 신탁통치 계획을 반대하라는 훈령을 받고 즉각 미 국무성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장 직함으로 공식 서한을 보냈다. ①한국민에게 자치능력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한국민에게 이양하라. ②한국 정부의 통일을 위해 소련군은 즉시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③한국은 문화수준이 높고 4,0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한 국가였다. 한국 국민은 외국통치나 신탁통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등 9개항으로 된 미국의 신탁통치설을 한국이 반대한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이 공식 서한에 대해 빈센트 국무성 극동국

여학생에게 악형을 가하는 일본 관헌의 잔인성을 당신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보았을 것인데 일본인에게는 인정도 없는가”라고 말하자, 뒷날 총리대신이 된 히로타 고우키는 비통한 표정이었다고 회고했다. 1920년 이승만 상해 임정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임시정부 대통령부 대령으로 임관되어 OSS작전을 도왔고 외무부장관, UN대사로 ‘외교의 귀신’이었다는 이 박사의 외교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필자가 <Diplomacy>를 발행하며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반사모”(반기문 사랑모임)를 조직하여 반기문 UN사무총장 당선에 일조한 사실이다. 반기문 총장에게 UN 사무총장 출마를 강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임병직 박사 회고록에서 UN과 대한민국 건국관계를 실감 있게 알게 되어 자신 있게 ‘대한민국은 UN에 의한 UN의 그리고 UN을 위한 위대한 작품이요 UN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UN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KB



사 람 들 은  
1 5 0 0 미 터 의  
물 보 라 를 본 다

나 는  
1 5 0 0 리 터 의  
땀 을 흘 렸 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이 만듭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

## 나의 취재備忘錄

## 이어島 탐사記



##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 취재주간
- 신성대 교수

1984년 초 KBS 제주방송총국 보도국 으로부터 신비의 섬 이어도를 탐사 취재하자는 제안이 왔고, 간부회의에서 본사 취재진과 제주 보도국이 힘을 합쳐 본격적인 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방부 차장이었던 나에게 탐사와 취재 보도를 총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어도의 실체를 찾아 신비를 벗기고 주변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가치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죽음과 낙원의 전설을 간직한 이어도는 파랑도로도 불리는 데 1900년 6월 일본에서 중국 상해로 가던 영국상선 소코트라호가 좌초한 후부터 알려져 Socotra Rock으로 해도에도 기록됐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정밀사진에도 나타나 있는 어찌 보면 신기할게 없는 조그만 암초일 뿐이다. 그렇지만 한번 그 섬을 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공포의 전설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

실제로 탐사에 동참하게 된 제주 어로지도선은 선장이 출항을 꺼렸고 일부 선원은 아예 친척집으로 숨어버려 찾아나선 군 공보실 직원이 애를 먹었으며 선원 부인들은 모두 불공을 드리러 갔다는 얘기도 들렸다.

또 탐사를 끝내고 제주항에 귀환한 우리를 많은 제주 사람들이 신기한듯이 구경에 나서기도 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안 죽고 왔지 하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탐사단에는 KBS 취재 기사를 비롯해 서 제주대학 학술조사단, 중앙일보와 연합통신 그리고 제주신문 기자 등 31명이 함께했으며 주 탐사선으로는 수산청 소속의 1,200톤급 어로지도선 부산 851호(선장 김기호), 그리고 현장 작업선으로는 50톤급의 제주 어로 지도선이 참여했다.

1984년 3월 16일 제주항을 출발한 1차 탐사는 높은 파도와 세찬 바람에다 해역에는 탁류가 흘러 수중촬영 등의 현장조사는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새까만 밤 바다의 두려움 속에 이를 밤을 떨었던 탐사단은 파도가 조금 줄어든 3월 18일 오후 1시 암초의 존재와 정상 위치를 확인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시 날씨가 화제한다는 기상예보를 접하고는 부랴부랴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 완전한 실패였다.

탐사단을 태운 부산 851호는 5월 8일 2차 탐사차 출항을 했고 다시 찾은 이어도는 잔잔한 남해바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제주 스쿠버 회원들은 신명이 나서 자맥질을 거듭했고 제주대학 해양과학대 교수들은 전문 분야별로 해양조사에 열을 올렸다.

취재진들도 수중촬영에다 현장 리포트에다 콘티 작성 등으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교수들의 학술조사, 기자들의 취재와 리포트, 탐사선의 이동과 배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탐사



당시 탐사 현장을 방영한 KBS TV 화면.

단장에게는 배멀미도 먼 나라 얘기였다. 해양식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한 제주대학 생물학과와 이용필 교수가 스킨 스쿠버를 할 줄 안다며 해저탐사를 자원했고 프로그램 제작상 그 작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나 그는 잠수 장비가 없었다.

그는 낚시 한번 해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 한턱 쏘겠다며 그물을 내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롤 어선이 사용한다는 그물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심상하고 커다란 횡감을 떠올렸으나 끌어 올린 그물은 텅 비었고 2번 더 내린 그물

## 전설속 실체 찾아 학술 조사 活用가치 보도 최근 中國의 영토 야욕 터무니 없음을 확인

스쿠버 회원들에게 장비를 빌려 줄 것을 부탁했으나 선뜻 내주는 회원이 없었다. 설득과 부탁도 먹혀 들지 않았다. 선상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일체의 해저탐사를 중단하고 철수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마지막 엄포를 놓자, 마지 못한 스쿠버 회장이 자기 장비를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 교수는 잠수를 할 수 있었고 취재진은 바라던 화면과 인터뷰를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4박5일의 2차 탐사 기간은 날씨가 정말 좋았다. 수중촬영을 포함해서 해저 지형과 지질조사, 주변 해양 물리조사, 수자원조사 등에서 계획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주로 돌아오는 길, 동료기자들과 취재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편집 방향 등에 대한 협의도 마치고 우리는 조금은 느긋한 분위기를 즐기며 바다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탐사와 취재 과정을 지켜본 부산 851호의 김기호 선장도 기분이 좋았다. 이어도까지 와서 생선 한 마리 먹지 못했다는 탐사단원들의 넋두리에

도 마찬가지였다.

김 선장은 5월의 제주 남쪽 바다는 한류 어족과 난류 어족이 모두 비껴난 자리여서 고기가 없다며 아쉬워 했다.

5월 15일 낮 우리는 제주에 접근하면서 무선으로 귀환 중임을 회사에 보고했다. “수고했다. 하루쯤 쉬고 내일부터 제작에 들어 가라”는 인자한 데스크의 지시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잠시 후 무선으로 돌아온 데스크의 지시는 청천벽력이었다.

오늘 밤 5시 뉴스에 중요 아이템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4쪽지 이상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원홍 사장의 직접 지시라는 첩언과 함께...

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후배 기자들은 괜히 일찍 보고하여 사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호랑이 사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뤄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회사 분위기였다.

또 긴급회의다. 우선 꼭지 선정을 했고 꼭지 별로 답아야 할 내용을 대충 지정했다. 그리고 담당기자를 정했다. 4

꼭지의 리포트를 4명의 기자가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면 중복의 우려와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촬영기자들은 화면편집 시간의 절대 부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유는 없다. 궁하면 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KBS 보도본부 기자들의 행동강령이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문인수 기자가 아이디어를 내놨다. “우선 화순항에 입항합시다. 거기서 후배기자들과 촬영기자는 우선 승용차편으로 방송국으로 달려가 화면편집 등의 준비를 미리하고, 호 선배와 나는 제주항으로 가는 배 안에서 4꼭지의 리포트 원고를 작성하면서 방송국과 연락을 취해 정리를 해 나갑시다.”

화순에서 승용차 편으로 내달린 후배기자들은 5시가 지나 방송국에 도착했고 우리가 탄 배는 오후 7시나 돼서야 제주항에 도착했다.

밤 8시가 넘어서 첫 번째 리포트를 본사 지방부로 송출하는 등 마지막 4번째 리포트를 본사로 송출한 시간은 밤 9시가 넘었다. 그 사이 사이로 리포트의 자막과 현장지도 그림 등도 챙겨 보내야 했다.

하라니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타 방송사와 취재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다.

서울로 귀사한 기자들은 또 특집제작에 매달려야 했다.

수중촬영과 해저탐사를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고 이어도 해역에서 채집한 암석과 점토를 제주 해역의 것과 비교 분석하는 실험도 했고 남북 110m, 동서 70m 정도의 암석 지반 위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상 관측이나 해양조사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래서 두 차례의 특집방송을 송출했으며 한국기자상을 받아 부상으로 유럽을 여행했고 ABU 특별상을 타기도 했다. 그리고 뿌듯했던 기억은 이어도 주변의 암석과 점토는 중국의 것과는 생성시기부터 다르며 제주도의 것과 유사하다는 연구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었고 화산 폭발로 생성된 땅은 1년에 1cm씩 침강한다는 맨틀대류설을 인용한다면 고려 중엽 이전에는 이어도가 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얻어 낸 것이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KBS가 이어도를 탐사한 3년 후인 1987년 해운항만청이 겨우 무인등대와 같은 항로표지부표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1995년부터 현장 해양조사와 연구 검토를 거쳐 2003년 6월 11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기지를 준공했음을 확인했다. 일단은 국제사회에서 이 해역이 우리 것이라는 압목적 인식을 심는데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지역에 구조물 설치를 반대했던 중국은 KBS 탐사 15년이 지난 1999년에 탐사단을 보내 현지 해역을 조사했으며 최근 들어 이어도를 중국 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입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팽창 정책의 한 표출로 보인다.

떠나는 일을 상상하면 언제나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선뜻 나서기 힘든 곳이다.

2007년 에베레스트 ‘칼라 파타르’를 다녀온 후에 몇몇이 의논하여 2008년에는 ‘낭가 파르바트’ 라운드 트래킹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다.

낭가 파르바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맥중 하나이다. 이 산맥에는 각각 루팔, 디아미르, 라이코트로 이름 붙여진 3면이 있는데 외양은 각각 현저하게 다르고 계곡에 따라 루트도 전혀 다르다.

일행은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3세부터 68세까지 평균 연령 55.3세...

6월 27일 오후 5시 35분 출발하여 KE651편으로 방콕까지 5시간.

다시 PK893(파키스탄 에어)편에 환승하여 4시간 30분을 비행하여 이슬라마바드에는 28일 새벽 5시 10분 도착.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여 늦은 오후 간다라 불교의 수도였던 탁실라 뮤지엄과 유적지를 다녀오다.

#### 6월 29일(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배삼을 거쳐 칠라스까지 670km.

06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10시 30분경 ‘만셀라’에서 야채와 과일 등 5박스를 구입하고 계속 달린다. 양방향 1차선이나 차선을 넘어 마주 오는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12시 30분 차타르플레인에서 밀크티와 짜파티로 휴식을 취한다. 도로포장은 되어 있으나 곳곳에 균열 등 패인 곳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한다. 힘 좋은 도요타 25인승 버스는 그래도 클랙슨을 한 두번 울리고 계속 추월하며 질주한다. 오후에는 인더스 강변을 따라 달리며 ‘라엣지’(딸기 크기만 하며 껍질을 벗기면 새콤달콤한 맛이 이채롭다)와 짜파티(밀가루를 반죽하여 두 손바닥만 넓이로 둥글게 하여 프라이팬에 구운 것)를 간식으로 먹어가며 17시간을 시달린 끝에 칠라스 파노라마 호텔 23시 정각에 도착.

#### 6월 30일(월)

칠라스에서 라이코트까지 버스로 1시간 40분. 다시 지프차에 갈아 타고 1시간. 라이코트 브리지에서 지프차에 또 갈아 타고 산을 향해 방향을 바꾼다.

낭가 파르바트의 두 곳. 루팔과 라이코트 중 가장 접근이 쉬운 라이코트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루팔로 가기 위한 고소적응도 겸한 트래킹이다.

라이코트는 사람에게 처음 정상을 내준 길답게 쉽게 짧게 돌면 낭가 파르바트 베이스 캠프로 갈 수 있는 곳이다. 거세게 웅틀임하는 물은 라이코트 빙하에 수원을 대고 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면 강의 빙하와 산과 하늘이 곧 하나의 세계임을 알게 된다. 끝과 끝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해발 2,600m의 타토 마을은 웅색하기 그지 없다. 이곳은 트래킹의 시발점일 뿐 쉬어 가야 할 곳은 아니었다.

누가 이곳을 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길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위험하다. 때로는 눈을 질끈 감아버려야 할 지경의 절벽 위를 가야 하고...

사방은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역의 계곡과 바위들은 태양열을 받아 지글거린다. 7월 초순의 이곳은 불판처럼 이글이글 타 올랐다. 라이코트 계곡에는 외부 차량은 단 한 대도 발을



바친 캠프에서 바라본 낭가 파르바트. 정상에 발강게 불들어 오기 시작한다.

## 하늘行 4,500m 直壁 앞에

발가벗은 산 8,125m



조 천 용

- 본회 회우
- 한국산악회 자문위원
- 시사저널 부국장

들어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현지인들이 20여년 전부터 라이코트 계곡 절벽에 붙어 개미처럼 다듬어 가며 길을 냈다. 장비라고는 삼 곡괭이 지렛대 망치가 전부다. 절벽을 따라 도려내듯이 깎아내고 그 돌을 벽돌로 다듬어서 절벽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고 한다.

지프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가파른 길로 타토(Tato)를 향해 힘겹게 오른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으나 다갈색의 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뀐다. 라이코트 계곡 절벽은 너무 깊어 아래를 내려다 볼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낭가 파르바트 빙하에서 녹은 물들이 보여야 하는데 거의 수직으로 내리 꽃히고 일부에서는 길이 절벽보다 바깥으로 슬며시 나온 오버행 구간까지 있어 바닥을 내려다 보려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걸어 오르겠다는 사람도 많으리라. 가끔 차체 옆에서 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길바닥을 이루는 돌들이 차의 무게로 압력을 받아 절벽 밑으로 밀려나면서 내지르는 소리였다. 핸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꺾거나 돌에 미끄러지면 그 다음 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바닥이 보이더니 어느새 시냇물이 흐르고 양쪽 계곡이 완만한 경사를 보여 하늘이 차차 넓어지는 무렵에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배낭을 메고 걸어



눈사태를 동반한 눈덩어리들이 계곡을 덮친다.



지프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가파른 길.

해발 1,000m의 고도를 올라야 한다. 그러나 라이코트를 지프차로 올라온 사람이라면 이제 두 발로 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지 알게 된다. “Thank You...”

대상이 무엇이건 차에서 내리면서 인사부터 나온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모래 지대를 지나면서 고도를 올리기 시작한지 4시간. 천상 화원으로 불리는 푸른 초원지대. 넓고 평평한 해발 3,306m의 페어리 메도우에 도착한다. 일명 요정의 초원... 몇몇은 약한 고소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페어리 메도우에서 본 낭가 파르바트의 위용.

# 人間은 한없이 작아진다

## 낭가 파르바트 트래킹



뜨거운 모래 언덕지대를 걷고 또 걷는다.

우선 편하게 쉬도록 하고 밀크차를 진하게 준비하여 권한다. 넓은 초원은 평화로웠다. 1895년 낭가 파르바트 등반 중 머메리(독일)가 실족사(失足死)한다. 그 후 독일의 빌리메르클이 낭가를 찾은 것은 37년이 지나서였다. 그리고 2년후 빌리메르클을 포함한 10명의 대원이 하산중 사망하고 또다시 3년 후 한 번의 눈사태로 대장인 카를로 비인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한 히말라야 최대의 참사가 발생하였다. 8,000m급 산의 최초 등정은 국력의 싸움이었다.

영국이 에베레스트를 9번씩 도전하여 성공을 하였듯 독일은 낭가 파르바트를 집중 공략했다.

에베레스트를 통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웅이 탄생했다면 낭가 파르바트에서는 '헤르만볼'이라는 초인이 탄생했다.

1953년 7월 3일 새벽 2시 티롤의 산악인 헤르만 볼은 헤르리히코퍼 대장의 후퇴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

5캠프를 떠났다. 영국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들은 뒤였다. 헤르만볼이 사력을 다해 홀로 정상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17시간 뒤인 오후 7시였다. 정상을 등정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캠프로 귀환한 29세의 헤르만볼이 60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전설이 아닌 사진으로 입증되었다.

**7월 1일(화)**

페어리 메도우 아침. 밤새 날씨가 제법 추웠나 보다. 1,000g짜리 거위 털 침낭이 안성맞춤이다.

아침이 상쾌하다. 숲에서 뿜어 나오는 깊은 향과 삼나무들, 야생 장미, 히말라야 노송들이 함께 어우러져 편잡 히말라야의 건강함을 느끼게 한다. 왼쪽으로 라이코트 빙하, 위쪽으로는 낭가 파르바트 정상이 구름에 가린 채 일부만 드러나고 있다. 우측으로는 전나무와 히말라야삼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09시에 출발하여 11시10분에 타토에

서 지프차로, 12시20분 라이코트 브리지에서 버스로, 아스토에서 중식점 휴식후 다시 지프차에 갈아타고 15시에 출발하여 타라싱(Tarashing)에 16시40분에 도착하다.

**7월 2일(수)**

날씨가 맑았다. 루팔 트래킹 기점인 타라싱(Tarashing 2,911m). 눈과 얼음이 붙어 있기조차 힘든 경사의 험벗은 산. 낭가 파르바트의 남벽과 동벽이 시야에 들어왔다. 해발 5,000m 윗부분은 하얀 구름을 완전히 뒤집어 썼다. 아래의 흰 빙설들만이 손님을 위엄있게 반겼다.

생각과 달리 짐을 메고 다니는 포터가 별로 없다. 지역 경제가 꾸준히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새를 몇 마리 소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곳에서 짐을 운반하는 수단은 사람이 아니라 노새라고 한다.

'바친' 캠프에서 지낼 이들 분 식량과 장비를 노새에 먼저 실어 보내고 학교 사이를 지나면 조금은 높은 언덕이 있으니 트래킹이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 팀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다. 경사를 올라서면 폭이 넓지 않은 빙하가 가로 막는다.

타라싱 혹은 일명 충파(Chungpha)빙하로 편잡 히말라야의 형제들인 해발 7,070m의 라이코트, 6,476m의 西宗그라(Chongra), 6,455m의 中宗그라, 이름 앞에 아무 것도 붙지 않는 6,830m의 宗그라에서 내려오는 얼음길이다. 이 능선들은 북서쪽으로 휘어져 고도를 낮추어 가다가 인더스강으로 들어간다.

빙하상태는 청빙이 아닌 모래와 돌들이 엮여져 있는 더티(Dirty)라서 걷기가 쉽지 않다. 빙하를 올라서고 모래 지대에서 다시 빙하로 내려서는데 한 떼의 양과 염소들을 이끌고 가는 양치기들의 모습이 한가롭다. 한 쪽에는 원색의 차도르 옷을 걸친 여인들이 지나가고, 다시 모래 지대를 지나고 평평한 초지 길을 지나면 푸른 오아시스 마을 루팔(Rupal)이 기다린다. 보리 밀을 재배하

는 완만한 경사지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쌓은 돌담들이 있는가 하면, 돌담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그냥 꽃밭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벌판이 이어진다.

굽이굽이 몇 개의 계곡을 지나며 나무 그늘 속을 파고들어 몇 번의 휴식을 취하며 '바친' (Bazhin 3,650m) 캠프 사이트에 들어선다. 축구장 만하다. 평지 위에 돌들이 간혹 있을 뿐 캠프하기엔 아주 적격이다 오른쪽으로는 깨끗한 물이 암벽 사이로 흐르고 식수로도 훌륭하다. 위로는 구름에 덮인 낭가 파르바트가 바로 머리 위에 있다.

**7월 3일(목)**

바친 캠프. 아침 5시 30분 기상. 텐트가 밝아지기에 슬리핑 백에서 서둘러 빠져 나왔다. 날씨가 쾌청하다.

바친 캠프 사이트에서 바라본 낭가 파르바트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낭가 파르바트' 정상이 발강계 물들어 오기 시작한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다. 발강계 물든 정상 부위가 걸히면서 밑에 그늘진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정상 부위는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흰 자태를 뽐낸다.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낀다.

헤르만볼이 낭가를 초등할 당시의 베이스를 가는 코스와 바친 빙하를 넘어 산허리를 왼쪽으로 끼고 멀리 돌아 독일과 일본 원정대 등이 희생된 루팔벽 가까운 곳으로 가는 코스가 있다

헤르리히코퍼 베이스 캠프는 연록색의 여린 풀들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분지다. 초원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낭가 파르바트 일대의 베이스 캠프들은 다른 히말라야와는 달리 대부분 시냇물이 흐르고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평화로운 곳에 자리잡는다.

더 높은 곳에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는 낭가 파르바트의 봉우리가 이 높이에서 갑자기 일어서듯이 하늘로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바친 캠프를 지나 꾸준히 오르면 이 자리에 도착한다. 거대한 낭가 파르바트의 남벽은 지구상의 모든 산군 중에 가장 높은 벽이다.

우리는 낭가를 바라본다. 남벽의 위용 앞에 숨이 멎을 듯하다. 4,500m에 이르는 남벽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급경사면의 벽이다. 소름끼치는 측벽의 일직선을 따라 만년설로 뒤덮인 정상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뒤로 젖힐 수밖에 없었다.

구름 한 점 티끌 하나 없는 사방에 청정의 본성이 묻어 나온다. 이 자리에서 불끈 일어난 위풍당당한 산을 정상부터 천천히 더듬어 바라본다.

버트리스, 단층애, 리페 현수빙하, 그야말로 고산의 해부학 공부가 그대로 펼쳐진다. 엄청난 주봉. 그 아래로 4,500m를 잇따라 깎아지른 유일한 일직선. 그 앞에 서면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압도적이다. 어마어마하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산이 으르렁거린다. 햇살을 받은 얼음 벽이 무너지면서 눈사태를 동반한 눈덩이들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계곡을 덮친다.

이제는 바친 캠프로 되돌아 가야 했다. 다시 너털 바위를 가로질러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모래인 지대를 지나간다. 양귀비꽃이 바람에 살랑거리려 시선을 멎게 하고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평화롭기만 했다.



한국의 중심, 강한충남

#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100년대계의 충청도청 이전신도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 실현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께가요  
우리서해



충청남도 [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 알림 가을 야외 수련 행사

10월 10일 충남 禮山 일원

올 가을 야외수련 행사를 10월 10일 수덕사가 있는 충청남도 예산 일원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회우님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때 : 10월 10일(금)
- 곳 : 충남 예산 일원

- 출발지 및 시간 : 10월 10일 오전 8시 정각 프레스센터 앞
- 신청접수 : 9월 18~19일(사전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02-2001-7621, 732-4797

## 요즘...



회우동정

· 가나다순

### LA라디오 코리아 출연



○ 김 화(본회 논설위원)=지난 7월부터 미국 LA 동포방송인 라디오 코리아 심야프로 '밤이 머무는 곳에'에 매주 목요일 출연, 국제전화로 40분동안 한국영화계 뒷얘기를 방송하고 있다.

### 장영실 기념회 상임고문



○ 제재형(諸宰馨) 회우=제재형 본회 명예회장이 최근 (사)과학선현 장영실 기념사업회 상임고문으로 취임했다. 연락처: 02-722-9981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황대연=서울 은평구 진관동 12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1동 302호 우)122-200
- 안현태=서울 은평구 진관동 13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07동 712호 우)122-120
- 김종현=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74 강마을 삼성A 102동 702호 우)150-810
- 이석희=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5동 804호 우)135-230
- 유지호=경기 용인시 기흥구 물푸레마을 경남아너스빌 404동 504호 우)446-915
- 정운중=전화 010-7276-6211
- 제재형=전화 010-5357-3303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 김영범 류무정 성병욱 안현태 이상우 이상호 임응식 전민조 한중광
- 2007년분 : 한중광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弔辭 李琮熙 선생 영전에

존경하는 이종희 선생님! 이 무슨 비보입니까.

며칠 전 건강한 목소리로 “고덕환 씨 보신탕을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 6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들르시게! 나 이제 입맛도 돌아 왔으니 함께 먹기로 하세!” 하신 약속도 지키시지 못한 채 돌아가시다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언론인회 고덕환 회우께서 약속한 시간에 댁을 방문했으나 선생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여서 텅텅 빈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덕환 회우님은 “아이쿠!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이튿날 오후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비보가 대한언론인회로 날아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우리 언론인회에 자주 찾아오셔서 후배들을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불광동 쪽에서 산을 넘고 걸어서 언론회관으로 오실만큼 건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명산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건강을 다지셨습니다. 그런 덕으로 두 번이나 대수술을 받았지만 끄덕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만년에는 불치의 병 폐암과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세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갖고 계셨던 일체의 망념과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미망의 마음도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지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걸

고 나라를 구하신 참전용사이십니다.

1957년 김포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을 다니셨습니다. 1960년 12월 조선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디디신 후 서울신문 교열부장 겸 부국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경기일보 창간멤버로 입사하셔서 5년 동안 신생 지방신문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몫을 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언론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선생님께서는 특히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못하시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였지만 김복례(74) 여사와의 사이에 4남을 두시고 남부럽지 않은 다복한 가정을 꾸려오셨습니다.

큰 아들 이순용 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자생활을 하는 것을 비롯, 네 아들 모두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등 선생님 생전에 남기신 업적에 우리는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선생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기도 합니다. 부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일랑 잊어버리시고, 인간의 마지막 생명이 영원히 잠드는 그 곳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듭 명복을 빕니다.

2008년 8월 9일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창화



조창화 회장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 本 회 日誌 (8월)

- 5일 = 회보 정기간행물 등록
- 6일 = 편집회의
- 9일 = 고 이종희 회우 언론인장

### ♡ 자녀결혼 축하합니다

• 호천웅(扈天雄) 회우 (전 KBS 취재주간·신성대 교수) 차녀 보경양 = 10월 4일(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온누리 교회 사랑성전. 주례 하이드 베이커 목사. 02-793-9686



“Asia's Premier Content Market”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

BCWW2008

제8회 국제방송영상컨벤션

• 2008년 9월 3일(수) ~ 5일(금) • 코엑스

Host MCST

Organization

KBI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Sponsor

KBS

COA KBA Korean Broadcasters Association

한국언론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KCTA

Seoul TOURISM & MARKETING

dell

ORACLE COMMUNICATIONS

Secretariat

GROUP 8 EIGHT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 고객님이 계신 곳이 바로 대한생명의 고객센터입니다



## 대한생명 찾아가는 서비스

사고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일반제지급 신청업무 등 혼자서 처리하기엔 너무도 복잡하고 번거로우셨죠?  
이제 대한생명 전담직원이 고객님의 계신 곳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구분  | 신청방법                                             | 이용시간              |
|-----|--------------------------------------------------|-------------------|
| 전화  | 콜센터(1588-6363) 상담원에게 신청                          | 09:00 ~ 18:00(평일) |
| 인터넷 |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에 접속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클릭 | 24시간              |
| F P | 담당 FP에게 신청                                       | 수시                |

### 서비스 가능업무

|     |                                                      |
|-----|------------------------------------------------------|
| 사 고 | 사고접수 (입원, 진단, 수술, 장제, 통원, 사망 등)                      |
| 제 지 | 생존지급 (분할보통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                         |
| 청 청 | 청상업무 (인정사망, 태아동태 등), 변경업무 (계약자/수익자 변경, 납입/보통기간 변경 등) |



1588-6363